

조경설계에 있어서 전통정원의 현대적 재현의 특성

-파리 서울공원 현상공모 출품작을 중심으로-

조경진* · 김정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박사과정

Characteristics of Representing Traditional Gardens in Landscape Design through Analyzing the Entry Plans of Seoul Park in Paris

Zoh, Kyung-Jin* · Kim, Chung-Ho**

*School of Architecture, Urban Planning, and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Ph. D. Program in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The University of Seou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he 6 entry plans of Seoul Park in Paris were representing the tradition by comparing and reviewing them. Entry plans proposed for Seoul Park revealed different approaches of representing traditional gardens. Through scrutinizing these plans, some similar and different aspects among them could be found out. In order to find out those aspects, the entry plans were analysed and compared into several categories such as design concepts, programs and spatial components.

The main concern for analysing the entry plans were focused on the issue of a representation. Representing a Korean garden into Seoul Park depends on the manner of a representation, their objects and media. Objects are related to the contents. The contents can have various themes, events, places beyond the garden. Media is related to represent Korean tradition with what implement. The manner of a representation can be divided into three types; a direct representation, an abstract(metaphoric) representation and a destructive representation.

We found the characteristics through analysing the entry plans that 1) Korean terrain, Korean thoughts, narrative promenade, past/present/Korea/Seoul, story telling through the Korean traditional fence were used as design concepts. 2) Traditional elements such as a traditional pavilion, fence, madang, hwagye, gate were generally chosen as essential elements for representing the Korean tradition. 3) Direct representations were more broadly used than abstract and destructive representation as the manner of a

representation, and 4) The entry plans show us a variety of possibilities of representing traditional gardens. Abstract and destructive representations of tradition can be found out in the several plans compared with other existing Korean gardens made in foreign countries. In establishing urban parks and ordinary landscapes, those strategies can be alternatives to represent the identity of Korea by reconciling tradition with invention.

Key Words : Representation, Korean Garden, Traditional Garden, Seoul Park

I. 서론

2000년 6월 서울시에서 자매도시인 프랑스 파리와 우호협력증진의 일환으로 파리시에 '서울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현상공모"를 시행하였다. 이 현상공모는 우리나라 조경설계에 있어서 영원한 화두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적인 정체성을 구현'하고 혹은 '전통조경의 현대적으로 재현'하는 실험장으로서, 현재의 조경업계의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불과 10여일 간의 짧은 시간적 제약 속에서 현상공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국성(서울성) 구현을 위한 충분한 모색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국내 유수의 설계업체들이 참여하여 오늘에 전통정원을 형상화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가 있다.

본 연구는 여섯 개의 현상공모 출품작을 비교·검토함으로써 각 설계안들이 어떻게 전통을 재현하고 있는가를 탐색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¹⁾ 비록 하나의 당선 안이 선정되어 시공이 추진되고 있지만, 당선되지 않은 안들도 한국전통정원을 재현하려는 모색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가능성으로 반추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설계안들은 답고자 하는 한국성을 물리적인 공간요소로 드러냈는가 혹은 전통공간의 구성수법을 활용했는가 또는 전통사상을 공간적으로 투영하고자 했는가에 따라 많은 차이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전통성을 설계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재현했는가는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설계안들의 종합적인 비교분석을 통하여 전통을 재현하는 공통적인 경향이 무엇이고, 서로 상이한 설계를

나눠 하는 이슈는 무엇인가를 밝혀냄으로써 앞으로 전통정원 계획 및 설계에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II. 재현의 개념과 양상

파리 서울공원의 분석에 앞서 몇 가지의 이론적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전통적인 정원의 모습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현하는가 하는 것이 파리 서울공원 설계의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재현이 무엇인가 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재현(representation)이란 "어떠한 것 다시 보는 것으로, 생각, 사물, 다시 일어난 사건, 혹은 묘사(模寫)이기도 하다. 재현은 재현되는 것을 대체하는 것이라기보다 그것의 해석이다"(Graves, 1982). 곧 현대에 한국정원을 형상화시키는 것은 그 특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보다 현재의 관점에서 추출한 특성을 설계가의 새로운 해석을 통하여 구체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단지 제시하는 것(present)과 다시 제시해주는 것, 즉 재현(represent) 사이에는 빈 공간이 존재하고, 이 빈 공간은 결국 새로운 재창조의 영역이 되는 것이다.

한국정원의 현대적 재현의 문제는 결국 대상(object), 매체(media), 표현하는 방법(manner)의 문제로 귀착되게 된다(Davis, 1992).²⁾ 여기서 대상의 문제는 정원에서 재현되는 내용과 연관되며, 매체와 표현방법의 문제는 전통정원을 조형화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정원에서 재현되는 내용은 정원경계를 넘어선 다른 장소, 사건, 주제를 포함한다(Hunt, 2000). 바빌

론의 공중정원은 멀리 떨어진 지역의 산악경관을 표현하였고, 영국의 스타우헤드(Stourhead)는 베르길리우스(Virgil)의 아이네이드(Aeneid)의 서사시에 나오는 주인공이 로마를 찾아가는 사건의 내용을 담고 있고, 16세기 피사(Pisa)와 파두아(Padua)의 식물원은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하던 4대륙의 이미지를 주제로 삼고 있다. 따라서 서울공원에서 재현의 대상은 한국의 지형 또는 서울의 지형, 지세를 축소화 것일 수도 있고, 서울에 있는 한국정원을 모사한 것일 수도 있으며, 한국이나 서울과 관련된 이야기가 펼쳐지거나, 한국정원을 체험하는 방식의 구조가 표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재현은 지시하는 것(indication)인 동시에 나타내는 것(apparaître)이며, 어떤 대상에 대한 관계인 동시에 대상 그 자체의 드러냄이기도 하다(Foucault, 1966). 문학과 같은 장르는 재현하고자 하는 내용만이 중요하지 이를 담는 재현의 주체인 언어 그 자체가 의미를 지니지는 않는다. 그러나 회화나 정원은 시각언어를 매체로 이용하기에 담은 내용과는 독립적으로 이를 표현하는 형식 자체가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어떤 내용을 재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재현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매체와 방식이 중요시된다. 매체(media)의 문제는 무엇을 가지고 한국성, 서울성을 표현했느냐 하는 것이다. 물리적인 형태가 가장 쉽게 떠오르는 매체가 될 것이다. 또는 한국과 서울에 관한 내러티브가 언어적인 매체로서 장소의 이름짓기(naming)나 장소에 텍스트로 인각될 수도 있을 것이며, 장소나 일상의 이미지가 시각매체나 영상매체로 전달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재현의 표현방법(manner)은 해석의 차이와 재조합의 정도에 따라 여러 양상으로 나타난다. 콜링우드는 예술에서의 재현을 문자적 재현과 정서적 재현³⁾으로 나누면서 재현을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소박하거나 거의 무선별적인 재현으로 이는 문자 그대로의 재현을 추구하는 것이다 둘째는 중요한 특징적인 모습을 선택하고 다른 것을 생략함으로써 동일한, 혹은 보다 성공적으로 정서적 효과를 산출하는 재현단계로서 문자적 재현과 정서적 재현이 혼합된 형태이다. 셋째는 문자 그대로의 재현을 완전히 포기하고, 결론팔지 않고 정서적 재현만을 추구하는 것이다(Collingwood, 1937).

김홍식(1987)은 건축에서의 전통 계승발전을 형태에 의한 방법과 내용에 의한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다. 형태에 의한 방법은 다시 형태의 모방과 형태의 분석에 의한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외부형태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모사하는 것이고, 후자는 전통건축의 공간 구성이나 건물의 비례와 같이 조형원리를 응용하는 것을 말한다. 내용에 의한 방법은 풍수지리사상과 같은 건축사상에서 출발하는 방식과 현대공간과 유사한 공간기능의 구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왕기(1996)는 건축에서의 전통을 변용하는 표현 방법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직설적 변용, 은유적 변용, 절충적 변용으로 나누고 있다. 직설적 변용은 현대적 재료를 사용하고 기능은 현재성을 유지하되 고전양식을 직설적으로 응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은유적 변용은 전통적 조형방식에 내재된 원리나 조형요소를 다른 것으로 치환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의 두 변용 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절충적 변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현의 방식을 직설적 재현, 추상적 재현, 해체적 재현을 구분하기로 한다. 직설적 재현은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형태의 모방이라 할 수 있다. 추상적 재현은 설계가의 주관의 의해 변형되고 재창조되는 것으로 일종의 은유적 재현이라 할 수 있다. 추상(은유)적 재현은 전통요소를 형태나 재료, 쓰임새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 놓음으로 해서, 두 요소 간의 구조적 혹은 관계적 동일성을 상상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것이다(조태일, 1994). 이는 콜링우드가 이야기하는 두 번째 단계의 재현이나 이왕기의 은유적 변용과 유사하게 다른 모습으로 치환되어 나타나지만 비슷한 정서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해체적 재현은 콜링우드의 세 번째 단계의 재현, 즉 순수한 정서적 재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추상적 재현에 포함되지만 은유로 치환되는 것을 넘어서 기존의 요소가 분해되고 재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해체적 재현은 원상의 모습이 와해되어 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지만, 보다 새로우면서도 원상의 느낌이 전달되는 상태를 말한다.

III. 전통의 문제

파리의 서울공원을 설계함에 있어 한국성(혹은 서울성)의 재현의 문제는 전통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계승하느냐의 문제로 귀착된다. 전통의 개념은 무엇이고, 전통과 재현은 어떠한 관계를 지니는가? 전통이란 오랜 세월을 통해 한 사회를 성격 지우는 감정과 행동방식이다(조요한, 1999). 전통은 단지 옛 것을 의미하는 정태적인 개념은 아니다. 전통은 옛 것과의 대화이고, 옛 것과 현재 것의 연속적이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구축된다. 그러므로 전통은 변화에 수용하는 유기적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생명력을 잃으면 전통은 단절되고 만다. 전통은 단지 물질이나 정신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몸 속에 현현된 정신과 같은 것이다. 즉 전통은 체화된 기억이라 할 수 있다(Vesley, 1983). 기억과 같이 전통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행동양식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를 이끄는 잠재적인 힘으로 작용하며, 미래의 창조적인 행위를 위한 밑거름이 된다. 과거의 의미는 현재의 언어로 변안될 때 포착되고, 새롭게 된다. 전통은 있는 그대로의 과거를 보존하는 것이라기보다 이를 보다 새롭게 전파하고, 동시대에 맞게 변안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Gadamer, 1986).

전통과 관련되었을 때 재현은 창조(creation)와는 다르게 완전히 새로운 만들어내는 것의 한계를 인식한 채 혁신을 모색하는 것이다. 창조의 개념에 입각한 예술운동은 아방가르드로 나타나는 데, 이는 이전의 것을 부정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현재의 상황의 불만에서 출발하고 모순적 상황을 극대화함으로써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자 한다. 이에 반해 재현은 백지상태가 아닌 현재의 상황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전통과 재현의 관계는 모순적인 관계가 아닌 보완적, 공생적 관계이다. 흔히 새로운 창조적 재현없이 과거의 것을 현재에 그대로 수용하는 노력은 역사주의적 오류에 빠지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옛 것을 단편적으로 그대로 모사하는 직설적 재현이 그러한 예이다. 이는 과거가 현재에 일방적으로 투영되는 것으로, 역사적 선례를 진부하게 반복하거나, 과거 양식을 컨텍스트를 도외시한 채 전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반해 전통의 뿌리 없이 새로운 것만을 탐닉하는 아방가르

드는 다른 영역에서 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경계를 확장하여, 오래 동안 고유의 영역이 이용해온 미디어나 표현의 사려 깊은 탐구가 없이 인간과 대지의 실존적 관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자의적인 유희로 전락할 위험을 지니게 된다.

전통성(혹은 지역성)을 견지하면서 동시대적인 감각과 호흡하는 비판적 지역주의(critical regionalism)의 일련의 건축·조경작품들은 전통과 새로움을 병치하는 '낮설게 하기'의 효과를 추구하고 있다.⁴⁾ 이러한 낮설게 하기는 대상에 대한 인식의 거리두기로, 전통적인 고유성을 나타내는 요소를 동일시하고, 이를 외부의 형태나 기법으로 분해하고, 결합하여 새로운 느낌이 형성되게 하기 위하여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이에 조응하는 표현 방법으로는 주변환경과의 일체화시키는 직접적 재현의 방식, 서로 다른 시공간과 요소간의 병치와 중첩에 의한 분리적 방식, 외부적인 기하학적 형태의 도출, 물성의 변화와 재료의 혼성에 의한 추상적 방식이 있으며, 비판적 지역주의의 작품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동시적으로, 종합적으로 취하고 있다(도경화, 2001). 전통성을 현대적으로 재현하는 일련의 흐름이 비판적 지역주의의 입장과 상통한다면 전통의 바람직한 재현은 직설적 재현만으로는 완전하다 할 수 없으며, 추상적 재현, 해체적 재현의 성격을 띠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V. 텍스트로서의 현상공모안

재현의 문제가 현상공모안을 읽는 관점이 된다면, 실현되지 않은 현상공모안을 왜,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하는 실제적인 문제가 대두된다. 아직 조성되지 않은 공원을 두고 이 시점에서 현상공모안이 왜 관심이 초점이 될까? 그것은 재현의 다양한 가능성이 다른 양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일 것이다. 그러므로 읽을 텍스트는 당선안 뿐만 아니라 당선되지 않은 설계안을 포함한다. 조경설계에 있어 현상공모안은 연구와 비평의 중요한 대상이 된다. 발존(Baljon)에 의한 라빌레트의 현상공모안의 비교분석의 연구는 20세기 후반 공원설계의 다원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Baljon, 1992). 이와 유사하게 여의도공원 현상공모안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설계안의 특징을 분석하거나(김수연, 2000), 또한 외국작품의 모방의 관점에서 여의도공원 현상공모안을 비평해 본 사례도 있다(Zoh and Pae, 1999) 또한 라빌레트공원에 이어 21세기 공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인 다운스뷰 공원(Downsview Park) 현상공모안에 대한 비평도 조경비평웹진(Juncus) 창간호에서 심층적으로 다루어졌다.⁵⁾

읽는다는 행위는 텍스트를 창출한 사람의 입장보다 이를 수용하는 사람의 입장에 중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텍스트는 의사 소통 과정내의 전달자와 수용자 사이에 존재하며 물리적인 실체를 가지면서 전달자와 분리되어 존재한다. 텍스트는 재현적 코드로 이루어진 기호들과 부가하여 담긴 의미의 합으로 구성되어있다. ‘작품’ 이라기보다 ‘텍스트’라 지칭하는 이유는 설계안이 수용자가 해독하는 일방적인 것이 아닌, 수용자가 여러 다른 방식으로 해독할 수 있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Eagleton, 1983).

현상공모안 텍스트의 대상에는 공모지침, 문자언어와 시각언어로 이루어진 현상공모안 등이 포함된다. 우선 현상공모안의 기획의도(흔히 공모지침서의 형태로 나타남)가 설계방향을 제시해주는 실마리라고 할 수 있다. 설계자가 설계의 해답을 구하는 단계는 문자언어와 시각언어로서 복합적으로 교차되면서 전개되며, 최종적으로 표현되는 방식은 드로잉과 언어적인 수단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설계개념, 프로그램들은 언어적 수단으로 표현되며, 공간적인 구성이나 분위기, 상세한 디테일들은 드로잉으로 나타난다. 현상공모안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현상공모지침서의 내용을 파악하여 보고, 언어적 수단으로 표현되는 설계개념과 프로그램들을 살펴본 후, 드로잉으로 표현되는 공간적인 구성, 분위기, 디테일을 분석하여 어떠한 전통적인 내용들이 어떠한 매체를 통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재현되었는지를 비교, 검토해보기로 한다.

V. 현상공모안의 분석

1. 현상공모지침서

서울시는 파리의 이콜리마타시옹 공원 내에 서울

공원을 계획하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를 제시하였다.⁶⁾ 첫째, 한국의 정서가 흐르는 전통과 현대를 조화하는 공간구성으로 프랑스문화를 고려한 공원조성, 둘째, 파리시민의 이용성향을 고려하여 이용에 적합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주제가 있는 공간구성, 셋째, 파리시민의 건강과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도시 환경의 조성,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공간 조성, 넷째, 환경친화적이며, 현지공원과 조화를 이루는 서울공원으로 조성 등이었다.⁷⁾

이상의 공모지침을 살펴보면 “다중적인 성격이 공존하는 장소”를 창조하고자 것이 제시되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의 조화, 한국적 문화의 장이면서 프랑스 문화를 수용해야하며, 이용에도 적합하면서도 주제가 있는 공원이 그것이다. 세부지침에서는 “한국(서울)의 이미지를 프랑스에 부각시킬 수 있는 개념 설정”이라 명시되어 있으며, 서울공원이라는 이름이 지칭하듯이 ‘서울성’도 한국성과 함께 담아야 될 내용이 된다. 또 다른 세부지침에서는 “현대적이며, 한국적인 공간 구성으로 이용자에게 적합한 기능위주 공원”이라 설정되어 있다. 이는 한국적 공간 구성을 떠올리며 한국정원의 성격도 지니지만, 쓰임새가 있는 기능위주의 현대적 공원이라는 면에서 한국정원을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고 볼 수 있다

2. 설계개념 및 프로그램

설계개념은 설계안에 대한 구조적 사고의 틀이며, 설계작품 전체에 질서를 부여하며, 나아가 형식적 구조를 이루는 바탕이 된다(김영대, 1999). 파리의 서울공원의 경우 다른 공원 현상공모와는 달리 이미 정해진 설계주제가 있어 설계개념이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는 여지가 많지는 않았다. 그러나 개념이 얼마나 추상적인가 얼마나 실제적인가의 차이, 또는 공간적으로 조형화하기에 쉬운가 어려운가의 차이가 있었다.

그림·한외의 경우는 한국 전통경관의 4가지 원형-풍수, 천지인(天地人), 무릉도원과 삼선도, 음과 양 그리고 테극-과 한국의 소리를 형상화하고자 하였다. 주로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사상 위주의 정형화되고 거대한 전통조형에 깔린 개념이 주로 사용되었다. 반면에 신화 컨설팅의 경우 공간을 전통정원의 사실적 재현공간,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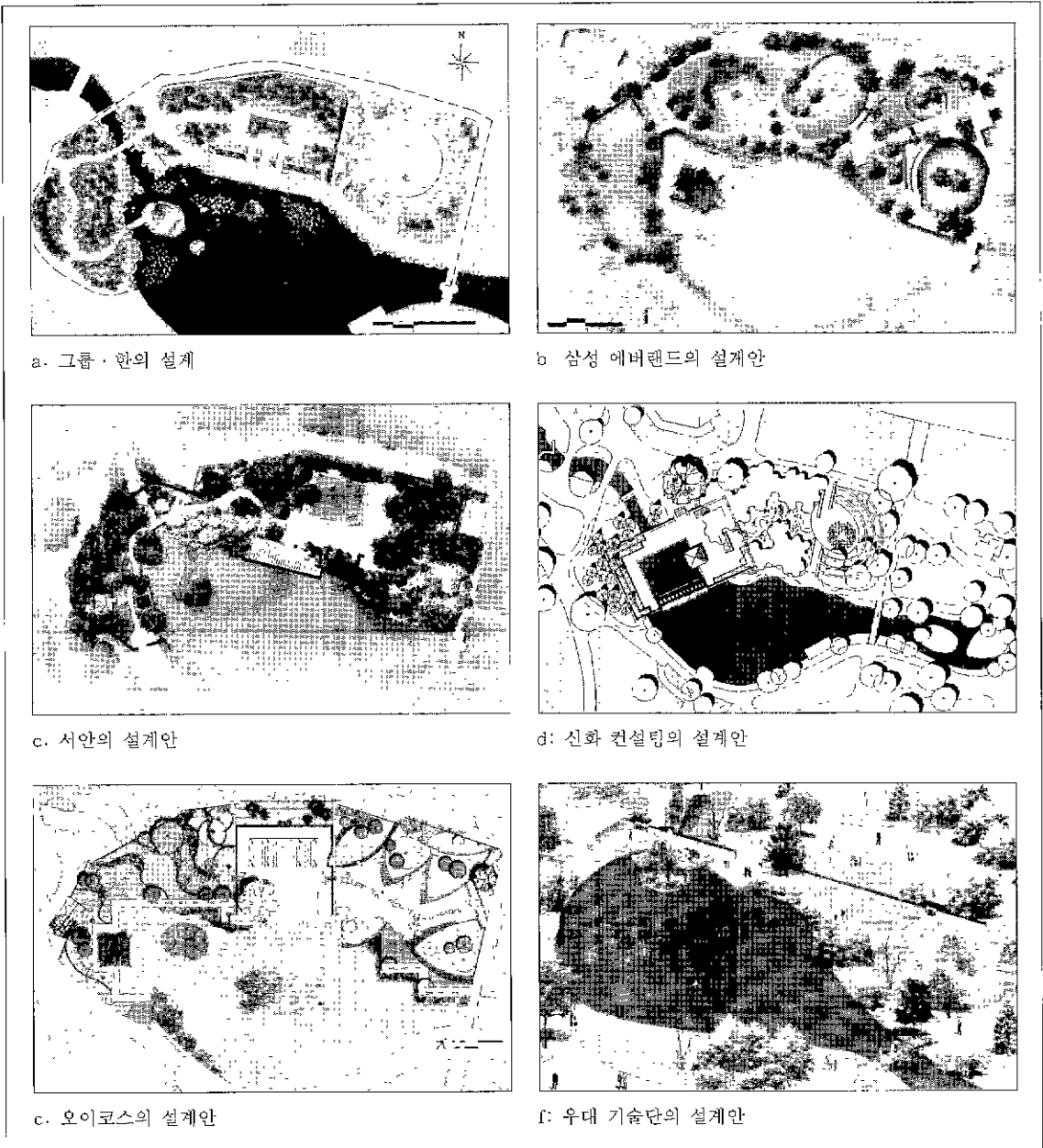


그림 1 출품한 현상공모안

나무숲길을 조성한 매개공간, 이벤트를 담는 서울마당으로 구분하고, 서울의 한강의 형상을 매개공간에 구현하고, 서울사람들의 일상적인 표정을 벽에 조형화 한다는 비교적 구체적인 개념이었다. 우대 기술단의 경우 담장이라는 주요한 조형적인 오브제를 이용하여 서울

의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였고, 한국의 전통적 공간(뜰, 마당, 언덕, 어귀)을 체험경로 상에 배치하였다. 오이코스의 경우 공간을 전통마당을 현대적으로 조형화한 정(庭)과 두 개의 원(園)으로 구분하여, 동원(東園)은 험준한 서울의 동쪽의 산세, 서원(西園)은 넓고

부드러운 평야를 모티브로 현대적으로 표현하였다. 서울과 한국의 지형요소를 압축하고 축소화하여 표현하는 것이 설계개념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물을 정화하는 순환체계를 통하여 환경친화적 설계개념을 구현하였다. 서안의 설계안은 시적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장소들을 순차적으로 펼쳐 보게끔 조성하였고, 설계 요소의 명명으로 장소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이에 조응하는 장소성을 경험하게끔 세부요소를 배치하였다. 삼성 에버랜드의 설계안은 완결된 한국정원의 전체가 아니라 한국적 요소들을 공간 기능에 따라 유기적으로 배치하고 그러한 작은 은유들을 통해 커다란 하나의 이야기를 표현한다는 개념이다. 한국적 지형, 구름과 프랑스의 기하학적 평면을 혼합하여, 이야기가 있는 전통적 공간요소를 도입하였다.

설계개념들은 한국전통사상의 조형화(그룹·한), 한국성과 서울성의 공간화, 조형화(신화컨설팅), 한국

조형요소의 미니멀한 배치(우대 기술단), 지형의 은유적 조형화(오이코스, 삼성 에버랜드)와 시적인 은유적 장소의 연출(서안)로 요약될 수 있다.

설계개념을 구체화하여 도입시설로 나타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보면 보다 세밀하게 설계안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드러난다. 아울러 도입시설을 비교해 보면 한국적 공간을 재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요소들이 주로 이용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각 설계안에서 도입된 시설은 표 1과 같다.

분석결과 모든 설계안에서 공통적으로 도입된 시설은 정자, 마당, 담이었고, 대나무숲, 소나무숲, 화계, 섬, 문, 다리, 장승/벽수가 많은 설계안에서 이용되었다. 대상지내에 호수가 있어 전통적인 한국정원의 요소인 방지는 두 개의 설계안(서안, 신화컨설팅)에서만 사용되었다. 동산(삼성 에버랜드)이나 계단식의 논두렁(오이코스)과 같은 경관요소가 도입된 것이 특징적

표 1 도입시설의 분석

설계안 도입시설	그룹·한의 설계안	삼성 에버랜드의 설계안	서안의 설계안	신화 컨설팅의 설계안	오이코스의 설계안	우대기술단의 설계안
정(亭)	전통정자	죽우정	파랑징,망원징	징자	에린정	에인징
담/벽	꽃담	시담,권할벽	꽃담,흙담	꽃담,장식벽	꽃담(지식/창조)	담장,유리벽
마당	한불마당	어울마당,잔디마당	바깥마당	서울마당	옥류정	조각의 미당
대나무/소나무	죽림,송림	소나무,죽림	송림,죽림원	송림,대나무숲길	소나무	대나무
전통식재	느티,전통화목류	느티,참나무,개나리,철쭉,복사꽃	도원,형초원,매화원,실구,초희류	정자목	신수유,단풍나무,모린,수변식생	전통지피류
화계	화계	화계	회계	화계	화계	-
섬	삼선도	거북섬	선유도	-	섬	섬
문(門)	홍살문,불로문,월문	피세문,불로문,중문,협문	명춘문,민월문,불로문	-	동평문,서평문,만월문	-
다리(橋)	목교	월하교	석교,선유교	-	-	석교
장승/벽수	장승,벽수	-	벽수	장승,벽수	-	장승,벽수
정원	-	세라믹정원,발견의 정원	외원	-	동원,서원	-
동산/산	-	그랑뛰뜨,쁘띠뜨 뷔뜨,석가산	석가산,자하산,조형산	-	-	인터
루(樓)	피서루(종각)	-	우현루	-	-	-
대(臺)/단(臺)	-	동/서월대,에양단,임해단	취운대,봉황대,월영대,밀영대	-	-	-
방지	-	-	언지	방지	-	-
기타 시설	괴석,돌무지,12시 싱징열주/지표 석,스탠드,수변 테크석계단	옥소암,계단지,세 심지,괴석	물쭈,석석,세한 로,동지상	돌무더기,스탠드	계단식논두렁,조각의 대지예술,석등,옥류천,물 확,돌거북,풍경	물확,석언지,한 국파빌리온,평 상

이다. 전체적으로 삼성 에버랜드, 서안의 설계안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많은 시설과 프로그램이, 신화 컨설팅, 우대 기술단의 안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시설도입을 통하여 한국적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안에서 정자, 마당, 담, 화계, 문, 장승/벽수 등 전통요소를 주요 도입시설로서 여과없이 도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공간의 연출과 구성

동일한 시설과 프로그램이라도 이를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 공간의 분위기는 달라진다. 그러므로 조경(정원)은 일종의 구성(composition)의 예술이다(Abroux, 1992). 조경공간의 구성과 연출은 농음(settings), 모음(collections), 소요(pilgrimages), 패턴(patterns)으로 구분된다. 농음은 문학의 은유와 같이 경관의 요소가 어우러지는 관계가 감동적이고 명확하여 주위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모음은 문학에서의 환유와 같이 근원적인 것을 연상시키는 단편들을 모아 놓는 것이다. 소요는 이야기처럼 순차적으로 체험하면서 전개되는 것이고, 패턴은 기하학적 모양이나 질서를 보여주는 것이다(Moore, 1988). 우대 기술단, 오이코스, 신화 컨설팅의 설계안은 농음의 성격이 강조되었고, 서안의 경우는 소요적 측면이 강조되었고, 그룹·한은 모음적인 성격이 부각되었으며, 삼성에버랜드의 경우 모음과 소요적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설계안들에서 한국정원의 요소들이 박물관식으로 사용되어 모음적 성격이 대부분의 공모안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었다. 이는 한국적 공간을 보다 충실히 재현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요소를 가능한 한 많이 모아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부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공모안 별로 공간적 구성의 특성을 살펴보면 그룹·한은의 경우, 공간을 무통계곡, 파서루 언덕, 한불마당 등 3개의 공간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송림과 죽림, 담장 등을 사용하여 외부공간과 차단시키고 있다. 마당(한불마당)과 루(파서루)와 같은 전통요소를 통하여 대상지의 전통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삼성 에버랜드는 그랑뷔뜨, 뽀뜨뽀뷔뜨, 발견의 정원, 죽우정, 잔디마당으로 공간을 크게 5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로 담

장에 의하여 외부와 경계를 형성하고 있다. 정자나 동산, 월대 등을 통하여 외부와의 시각적 개방을 피하고 있고, 크고 작은 동산과 정원 정자를 통하여 서울공원의 전통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서안의 경우는 순차적 체험에 의한 기-승-전-결의 1공간으로 구분되며, 담장에 의하여 외부와의 단절을 피하고 있으며, 연지와 루, 정자, 마당 등을 통하여 전통적 특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신화 컨설팅의 경우는 전통정원 재현공간, 매개공간, 서울마당으로 공간을 확실하게 3등분하고 있으며, 송림, 죽림에 의하여 외부와 경계를 이루며, 정자와 방지, 마당, 조형벽을 통하여 전통을 재현, 강조하고 있다. 오이코스는 공간을 서원, 옥류정, 동원으로 구분하고 담장으로 외부와의 단절을 피하면서 마당과 정자 그리고 원(園)과 정(庭)을 강조하고 있다. 우대 기술단의 경우는 공간을 구분하지 않고 담장에 의한 하나의 공간으로 시각적 연속성을 갖게 하면서, 외부와의 개방성을 갖도록 하였으며, 담장과 마당, 파빌리온을 통하여 설계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간은 3개의 공간으로 구분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대상지의 물리적 형태가 호수에 의하여 한 개의 작은 부지와 한 개의 큰 부지로 나누어져 있어서 3공간으로 구분하는 것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기능적으로 공간을 설계하기에 가장 용이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우대 기술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안이 죽림이나 송림, 담장에 의하여 서울공원과 외부와의 공간적 차단을 피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공원 내에서 전통적으로 재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부지의 맥락이 서로 이질적인 성격을 보였기 때문인 것 같다. 모든 공모안에서 정자나, 담장, 마당과 같은 전통적 요소들의 도입을 통하여 설계안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I. 한국성 재현의 양상

파리 서울공원을 조성하는 일은 결국 한국성 혹은 서울성을 어떻게 재현했는가 의 문제로 귀결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재현은 재현의 내용, 매체, 방식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재현의 내용으로서는 한국정원의 형태나 의미, 조형방식, 혹은 한국의 지세와 지형이 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삼성 에버랜드의 설계안은 한국정원의 요소(정자, 담, 문, 대, 설, 마당 등)와 정원의 의미(풍류적, 유교적, 유희적, 전통사상적 의미)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서울의 지형과 서울의 풍물들을 담고 있다. 서안의 설계안은 한국정원의 요소와 정원의 조영방식 - 경관에 시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방식(詩景), 보다 구체적으로 시적인 장소 이름짓기 -를 제현의 내용으로 삼고 있다. 그룹·한의 설계안은 한국정원의 요소와 사상적 의미(풍수, 천지인, 음양 등)와 한국의 소리를 주제로 이용하고 있다. 신화 컨설팅의 경우는 한국정원의 요소와 풍류와 같은 의미와 정원을 이용하는 방식 - 마당에서의 이벤트 -을 담아 물리적 그리고 비물리적 요소를 구현하고자 했고, 한강의 형상과 서울사람의 표정으로 서울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오이코스스의 경우는 한국정원의 요소와 한국의 지형과 지세, 한국 문화-고유 문화(한글)와 정보화시대의 한국문화(컴퓨터언어)-를 담았으며, 서울의 정원 요소를 가지고 서울성을 담고자 하였다. 우대 기술단의 경우는 한국정원의 요소 중 담장을 주요요소로 부각시켰으며, 담장과 파빌리온에 한국과 서울의 이미지를 그려내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설계안은 보편적인 한국성이 주제가 되었고, 서울성은 서울에 있는 정원의 단편적인 이미지(오이코스, 서안), 지리적인 형상(신화컨설팅), 서울지도(그룹·한), 사람들의 일상표정(신화컨설팅), 서울의 일상경관(삼성에버랜드)들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전달되었다. 상대적으로 신화컨설팅의 안은 서울성의 재현이 강하게 부각된 반면, 서안의 안의 경우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재현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떠한 매체를 통하여 표현되었는가? 한국성은 한국정원의 물리적 공간이나 요소를 통하여 표현되었다. 설계안마다 보이는 차이점은 삼성 에버랜드의 경우 대지의 마운딩 동산이 한국성(서울성)을 표현하는 매체로 사용되었고, 서울의 풍물을 보여주는 영상매체인 만화경이 사용되었다. 우대 기술단의 경우 한국(서울)의 담에 서울의 이미지를 부조로서 형상화하였고, 전시관 파빌리온 내부에 영상매체를 통해서도 전달되도록 하였다. 신화 컨설팅의 경우는 서울사람의 표정이 이미지화되어 조형벽에 표현되고 있다. 오이코스스의 경우는 대지 마운딩이 한국성을 표현하는 매체가 되었다. 또한 주로 이름짓기로 표현되는 문

자매체 역시 한국성(서울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쓰여졌는데, 서안과 삼성 에버랜드의 설계안에서는 시적이고 상징적인 명명(命名)이 많았고, 그룹·한과 오이코스스는 전통정원에서 쓰였던 명칭을 통해 한국성과 서울성을 재현하고자 했으며, 오이코스스의 경우 한글과 컴퓨터언어의 문자매체도 사용되었다.

제현의 방식은 직설적, 추상(은유)적, 해체적 제현으로 구분되는데, 전통요소를 그대로 이용한 예들은 직설적 제현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설계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우대 기술단 안에서의 유리벽과 유리로 된 파빌리온은 담장이나 건축물의 벽을 상상시키는 추상(은유)적 제현이라 할 수 있다. 오이코스스의 경우 한국의 동서의 지형을 계단식 논두렁과 조각의 대지에술로 추상화하였으며, 서울의 자연배경인 북한산은 화계로 한강은 호수로 옥류전은 큰 돌로서 추상화하였다. 신화컨설팅의 경우 한강은 바닥포장의 형태로, 헌불수교(1886) 이후 현재까지의 기간인 114년을 바닥포장의 유니트로 은유화 하였다. 형태적으로는 직설적 제현에 의존하지만, 이름짓기를 통하여 은유적 제현을 한 경우가 많았다. 삼성 에버랜드의 경우 조형적으로는 삼신도를 상징하는 거북모양의 섬을 만들고 건강과 평화를 은유화 하였고, 입해단은 호수를 바다로, 월대는 호수 위에 뜬 달을 감상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은유화 하였다. 서안의 경우 손님맞이의 영춘문(迎春門), 솔향기 깊은 제한로(歲寒路), 구름속의 전망 취운대(翠雲臺), 선비들의 이상향 도원(桃園), 아득하던 경치를 즐기는 우현루(又玄樓), 태평성대 길조를 기다리는 봉황대(鳳凰臺), 선경으로 건너는 선유교(仙遊橋), 바람소리 청아한 죽림원(竹林苑) 등 장소에 시적인 이름짓기로 은유적 공간을 구상했고, 이와 조응하는 공간적 체험 요소를 연출하였다. 그룹·한은 삼선도와 무릉계곡으로 은유적 명명을 하였고, 서울지도와 파리지도 그리고 음양과 태극은 헌불마당에 포장으로 표현되었다. 형태는 직설적 제현이고, 이름짓기만 은유적 제현인 경우는 내용에 합당한 형식을 구축하고 있지 못하기에 완성도 높은 제현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즉 이는 조형화되지 못한 개념의 유희에만 머무르는 한계를 노정하게 된다.

기존의 요소를 분해하고 재구성하는 해체적 제현은 신화 컨설팅의 설계안에서는 계류를 방지로 모았다가

호수로 낙수시키는 방식, 서안의 안에서는 루의 기단 위의 형태를 삭제하여 흔적만 남기고 바닥의 재료를 현대적인 스틸, 유리 등으로 재구성한 예. 삼성 에버랜드의 경우 전통요소를 분해하고 이곳 저곳에 흩어놓아 재조합한 예에서 발견된다. 우대 기술단의 경우도 공간의 경계를 짓는 담을 오브제로 이용하여 본래의 컨텍스트와 기능을 전치시켰다.

이상과 같이 현상공모안의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전통의 현대적 재현의 양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우선 전통사상의 조형화, 전통정원의 사실적 재현, 한국성의 조형화 등 거대담론적이고 직설적으로 전통의 내용을 재현하고 있으며, 현대적 시각에 입각하여 다양하게 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서울성과 한국성을 동일시하는 오류도 대부분의 안에서 발견되며, 전통조경에 관한 연구가 거의 조선시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지 조선시대의 전통이 우리나라의 전통으로 인식되고 있어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근대의 전통적 요소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전통의 재현을 위한 표현방식도 추상적 해체적 재현보다는 직설적 재현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매체의 선정에 있어서도 정자, 마당, 담장, 대나무숲, 화계, 문, 장승/벽수 등 전통적 소재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현대적 재현이라기보다는 과거전통을 그대로 답습하는 양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거대담론적인 내용보다는 하나의 작은 전통요소를 은유적이거나 해체적 재현방법을 통하여 펼쳐 보인 단가, 현대적인 한국적 매체의 활용하여 한국적 정서가 내재된 장소를 재현한다던가하는 보다 다양한 모색이 적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VII.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전통정원을 재현하는 양상을 내용, 매체, 방식으로 분류하였고, 이에 의거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재현하는 내용으로는 전통공간의 형태가 주류를 이루었고, 전통공간이 담고 있는 의미도 부분적으로 투영되었다. 지형과 지세를 축소하여 재현하였고(오이코스, 삼성 에버랜드), 전통정원의 구성원리(서안의 경우-詩景)나 서울의 대표적인 특징(신화 컨설팅)도 담고 있다. 재현의 매체로는 물리적인 정원의 공간형태, 대지라는 매체(삼성 에버랜드, 오이코

스)와 의미전달을 위한 문자매체(삼성 에버랜드, 서안) 등이 이용되었고, 부조와 같은 조각(신화 컨설팅)과 현대적인 영상매체(우대 기술단)도 활용되었다. 재현의 방식은 전통공간을 직설적으로 재현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었고, 은유적 재현에서는 주로 형태를 직설적 재현하는 것에 덧붙여 은유적 이룸짓기(신화와 삼성 에버랜드)와 함께 소재를 달리하는 방식(우대 기술단, 서안)도 나타났다. 해체적 재현의 경우 공간요소를 해체하여 배치하는 방식(삼성 에버랜드), 공간자체를 해체하는 방식(서안), 공간요소의 컨텍스트를 해체하는 방식(우대 기술단)도 시도되었다.

전체적으로 조감하여 보면 여전히 대부분의 설계안에서 전통의 사실적 재현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전통의 직설적 재현은 재현이 아니라 모방에 가깝다. 어떻게 전통적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새로운 내용으로 현대적인 매체로써 재현하는가에 대한 보다 치밀한 연구와 탐색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통조경공간을 현재의 관점에서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과거의 그 공간을 조성하였던 역사적 시점으로 되돌아가 그 당시의 한국적 사상이 어떠하였는지, 시대적 상황이 어떠하였는지를 알아보고 그 시대적 입장에서 전통사상을 재해석하고 재음미하여봄으로써 새로운 전통의 현대적 재현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 시대의 조형은 그 시대의 시대정신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의 재현이라는 측면이 거의 조선시대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도 아쉬움이 남는다.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 대한 남아있는 고증적 자료가 별로 없어 재현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근대의 역사에 관한 자료는 조선시대보다 훨씬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근대적 전통을 재현하고자 하는 노력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오래된 것만이 값진 전통은 아닌 것이며, 전통은 계속 순차적으로 계승되면서 발전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파리의 서울공원을 조성하는 일은 정원문화를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문화를 전파하는 전위대적인 작업으로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라 하겠다. 특히 외국에 이미 중국정원이나 일본정원의 전파되어 만들어지는 것이 보편화된 상황에서는 더욱 절실한 문제이다. 서울공원을 외국에 만드는 일은 두 번의 선례가 있었다. 1990년 일본 오사카 EXPO 꽃박람회장에 한국정

원이 조성되었고, 1997년 서울시와 카이로시의 자매결연 후속작업으로서 카이로 국제공원에 서울공원이 조성되었다. 이 두 사례 공히 당시에는 현상공모의 형식을 취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조성된 이 두 서울공원은 한국정원의 대표적인 요소들을 - 즉 정자, 화계, 방지, 담장, 계류 등 - 한자리에 모아 놓는 방식으로 현대적인 언어나 감각으로 거르지 않고 직설적인 표현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에 비하여 파리 서울공원의 경우 현상공모의 형식을 취하여 앞서 시공된 서울공원보다는 훨씬 다양한 설계안이 제시되었으며, 직설적인 표현이나 관행화된 설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가 엿보인다는 점에서 전통의 재현에 문제에 대해 진일보한 면을 보여주었다 하겠다. 따라서 당선안뿐만 아니라 여타 현상공모에 출품한 설계안들도 반추해볼 만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며, 또한 서울공원을 설계하며 고민하고 시도했던 실험들은 생활공간에서 한국성을 재현하는데 구체적으로 적용해볼 만한 단초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 일상적인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데에도 부분적으로 한국정원을 만드는 일이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보편화된 전통의 재현 방식은 방지나 계류, 정자, 소나무 등을 이용한 직설적 재현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파리의 서울공원의 현상공모안에서는 보다 발전된 은유적, 해체적 재현방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주 1. 파리 서울공원의 현상공모에는 그를·한, 삼성 에버랜드, 서안, 신화 컨설팅, 오이코스, 우대 기술단 등 여섯 개 회사의 작품이 출품되었고, 삼성 에버랜드의 인이 당선작으로 결정되었다.

주 2.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은 '모방'이라고 보았고 모방은 매체, 대상,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발한 모방의 개념은 엄밀히 보아서 모사(mimataion)이라기보다 미메시스(mimesis)로 재현과 유사한 뜻을 지니고 있다

주 3. 롤링우드는 문자적 재현이란 재현된 대상이 원상(original)과 닮은 것을 말하며, 정서적 재현은 재현된 대상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이 원상이 불러일으키는 감정과 유사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주 4. 비판적 지역주의는 건축이론가 케네스 프램톤(Kenneth Frampton)이 주창한 이론으로서 북고적인 지역주의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지역성(전통성)을 담보하면서도 모더니즘이 지니는 건강한 정신을 확보하는 계열의 건축

작품을 지칭한다. 안도 타다오, 루이스 바리칸 등의 건축이 그 대표적인 예이고, 비판적 지역주의는 서구의 자본주의 중심부의 산업과 미학에 주변부인 제 3세계를 침탈하는 것에 대항하는 의미를 지닌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Kenneth Frampton(1983) Toward a Critical Regionalism, The Anti-Aesthetics, ed Hal Foster Seattle, WA Bay Press 16-30.

주 5 Downsview Park 현상공모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http://www.juncus.com/release1>

주 6 파리의 서울공원의 대상지가 위치한 아끌리마따시옹 공원은 프랑스 파리시 16구 블로뉴 숲에 위치한 공원으로서 총 면적은 190,000 m² 에 달한다 이 중에서 서울공원으로 할애된 면적은 4,675 m² 이며, 그 중 지상부가 3,108 m² 이고 수면부가 1,567 m² 이다 아끌리마따시옹 공원의 연 평균 이용객은 약 1,200,000명 정도이며 입장료가 10프랑인 유료공원이다 공원 내 주요시설물은 어린이 놀이터, 서커스, 순환기차, 회전목마, 조랑말, 미니골프, 어린이극장, 동물농장, 피수원, 박물관, 식당 등이 있으며 유희공원적 성격이 강한 곳이다

주 7 「파리 서울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현상공모」 응모요령, (서울특별시 공문, 2000. 6. 22)

인용문헌

- 1 김수연(2000) 조경설계 작품분석에 관한 연구 여의도공원 현상설계공모안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김영대(1999) 조경설계의 이해, 조경설계론, 설계언어의 접근과 실제, 한국조경학회 편· 11-42
- 3 김홍식(1987) 민족건축론, 한길사.
1. 도경화(2001) 비판적 지역주의에 기초한 조경설계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서울특별시 공문(2000 6 22) 파리 서울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현상공모 응모요령
- 6 이왕기(1996) 전통, 민용의 한계와 극복, 환경과 조경 110 66-73.
- 7 조요한(1999) 한국미의 조명, 열화당
- 8 조데일(1994) 시창작을 위한 서론, 니남출판.
- 9 Abnoux, Y.(1992) Jar Hamilton Finlay Cambridge The MIT Press.
10. Baljon, L.(1992) Designing Parks Amsterdam. Architectura and Natura Press
11. Collingwood, G E (1937) The Principles of Art 문정복(역), 예술의 원리 서울·형설출판사 1982
12. Davis, M (1992) Aristotle's Poetics.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Publishers
- 13 Eagleton, T.(1983) Literary Theory Minnesota'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14 Foucault, M (1966) Les Mots et Les Choses, 이광래(역) 말과 사물 서울, 대우미술출서, 1980.
- 15 Gadamer, H G (1986) The Relevance of The Beautiful and Other Essay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6 Graves, M.(1982) Representation. In Representation and Architecture, eds. O Akin and E. F. Weinel, Silver Spring, Maryland Information Dynamics Inc. pp. 27-91.
- 17 Hunt, J. D (2000) Greater Perfections: The Practice of Garden Theory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8. Moore, C W., W. J. Mitchell, and W. Turnbull, Jr (1988) The Poetics of Gardens, Cambridge, MA: The MIT Press
19. Vesley, D.(1983) Architecture and Continuity. London Architectural Association
20. Zoh, K J, and J H. Pae (1999) Conflicts and Problems of Foreign Models in Designing Youdo Park In New Directions for the 21C Landscape Architecture, Eastern Regional Conference 99, Seoul. IFLA pp 82-89.
21. [http //www.juncus.com/release1](http://www.juncus.com/release1)